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5층 전화 02-957-8817 전송 02-957-8827

누리편지 286page@naver.com 누리집 www.pacificwar.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역사·NGO 담당 기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 이희자)

발 신 담당 : 간사 김진영 010-9811-1092, 286page@naver.com

집행위원장 김민철 010-9697-2582, banmin@hanmail.net

발송일자 2014년 3월 24일

제 목 (주)후지코시 총회에서의 혐오발언 규탄과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
송 기자회견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2월 19일 도야마 후지코시 본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주주로 참여한 후지코시여자근로정신대 원고 김명배 씨에게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일본인 주주들이 ‘조선으로 돌아가라’ 등의 민족적인 모멸감을 주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주)후지코시 측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오히려 원고주주를 총회 방해꾼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우익들의 혐오발언이 마침내 총회에서까지 나오게 되어 우리들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후지코시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원고들의 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후지코시회사는 민족차별 선동의 책임을 져라!”

(주)후지코시 총회에서의 혐오발언 규탄과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10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원고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학회

○ 순서

－ 인사말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경과보고 :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학회)

－ 원고 규탄 발언(김명배 등)

－ 성명서 낭독

※ 참석자 : 최희순, 안희수, 전옥남, 이복실, 김정주 등 원고 10여명, 일본 재판지원회 2명, 보추협 유족 및 관계자 5명

※ 오후 2시 : 재판 심리 참석(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

※ 첨부자료

1. 한국 소송 경과

2-1. 성명서(한국어)

2-2. 성명서(일본어). 끝.

<첨부자료>

1. 한국 소송 경과

2013.2.14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596
2013.11.7	1차 기일	피고측 변호사 선임 확인, 불참
2014.1.14	2차 기일	
2014.3.25	3차 기일	원고 본인심문

2-1. 성명서(한국어)

(주)후지코시 주주총회에서 혐오발언을 규탄한다!

2014년 2월 19일, 후지코시(不二越) 제1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본인주주는 한국인주주에게 큰 소리로 ‘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선으로!’라며 중대한 민족차별 선동(혐오발언)을 하였다. 주주총회에서의 혐오발언은 강제연행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이 차별 폭언을 한 주주를 규탄한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는 후지코시(不二越)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한국인 주주를 배제하는 일본 기업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인가! 전쟁책임도 지지 않고 아시아에 진출한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민족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서울에 있는 후지코시 영업소, 대성NACHI, 후지코시의 지주회사, 후지코시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이 문제에 대한 견해표명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을 멸시하는 후지코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항의해주기를 바란다.

혐오 발언을 만들어낸 것은 후지코시와 일본정부

후지코시는 오랜 세월을 걸쳐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소송의 원고인 한국인 주주와 지원회의 회원주주는 매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강제연행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후지코시 측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강제 연행 문제는 주주총회와 상관없다’며 완전히 무시해왔다. 게다가 후지코시의 경영진은 한국인 주주와 지원회 회원 주주가 마치 총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취급했다. 이번 민족차별 폭언을 만들어 낸 책임은 (주)후지코시에 있다.

일본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등의 문제에 대해 수상이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가가 사죄를 하지도 않았고 증거를 보전·공개하지도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한일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전쟁책임을 회피해왔다. 그 결과 일본사회에서 ‘몇 번이나 사과했다’, ‘해결되었으니까 적당히 해라’라는 비난이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돈을 노리는 거짓말쟁이’라는 매도가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이들이 현 아베(安倍)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한 시위와 혐오 발언의 배경에는 극우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반동적인 정책이 있다.

이러한 흐름이 후지코시 주주총회에서 혐오 발언을 한 일본인주주를 낳은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

다.

“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선으로!”라는 발언은 이후에 침략과 학살로 이어진다.

“조선으로 돌아가라!”라는 발언은 ‘안 돌아가면 내쫓겠다’는 뜻이다. 재일교포와 한국인을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특회(在特會,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는 “관동대지진 때처럼 조선인을 대학살하겠다.”, “한국인을 가스실에 보내자”라고 부르짖고 있다. 혐오 발언은 한국인의 생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행위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허용한다면, 일본 민중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또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처음에는 ‘유대인은 독일에서 나가라’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결국에 말살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의 재침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 것은 민족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투쟁이며, 또한 아베정권의 재침략을 저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원고들과 함께 하며 반드시 후지코시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침략전쟁·식민지배로 가는 길을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

2014.3.25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2-2. 성명서(일본어)

不二越株主総会（2月19日）でのヘイトスピーチに抗議する！

2014年2月19日、不二越第131期定時株主総会で、日本人株主によって韓国人株主に対して大声で「朝鮮に帰りなさいよ！朝鮮に！」という重大な民族差別扇動（ヘイトスピーチ）が行われた。株主総会でのヘイトスピーチは、強制連行被害者である原告への襲撃である。私たちは、この差別暴言を行った株主を弾劾するとともに、この問題について見解を明らかにしない不二越に対しても強く抗議する。

韓国人株主を排除するような日本企業を存在させて良いのか！戦争責任も取らずアジアに進出していることも問題だが、さらに民族差別を容認し、助長させるような企業が世界で企業展開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立場を変えて考えてみれば明らかだ。

ソウルの不二越営業所、大成NACHI、不二越の持ち株会社、全ての取り引き企業にこの問題に対する見解を求めたい。韓国政府は韓国人蔑視の不二越に対する見解を明らかにし、抗議していただきたい。

ヘイトスピーチを生み出したのは不二越と日本政府

不二越は長きにわたり、一貫して被害者らの声を真剣に聞こうとしなかった。原告株主と支援株主は毎年株主総会に参加し、強制連行問題の解決を求めてきた。しかし、「係争中なので答えられない」「強制連行問題は総会とは関係ない」と、一切聞く耳を持たなかった。不二越経営陣はその上、韓国原告株主と支援株主があたかも総会に対する妨害者であるかのように扱ってきた。この民族差別暴言を生み出した責任は、不二越にある。

日本政府は過去に首相談話を発表したのが、国家謝罪を行わず証拠保全・公開も行わなかった。日本軍「慰安婦」や強制連行被害者の訴えに対して、「日韓条約で解決済み」と戦争責任を居直ってきた。その結果、日本社会において「何度も謝った」「済んだことをいいかげんにしろ」、更には被害者に対し「金目当てのウソつき」などの罵倒が公然と言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た意識を持つ人々が安倍政権を支持している。現在、日本全国で起きている韓嫌デモやヘイトスピーチの背景には、極右安倍政権の歴史認識と反動政策がある。

不二越株主総会でヘイトスピーチを行った日本人株主はこのような流れが生んだものであり、深刻な問題だ。

「朝鮮に帰りなさいよ」の行き着く先は侵略と虐殺

「（原告は）帰れ！」とは、「帰らなければ追い出す」ということである。「在日」や韓国人は同じ人間として認めないと言っているのだ。在特会は、「関東大震災大虐殺をやるぞ」「韓国人をガス室へ」と叫んでいる。ヘイトスピーチは韓国人の生存そのものを否定する暴力行為そのものだ。これを許せば、日本民衆による朝鮮人虐殺の再来になる。

ナチスも初めは「ユダヤ人はドイツから出て行け」だった。それが最終的には抹殺政策にまで至ったのである。

日本の再侵略を許さない

日本の戦争責任追及の闘いは、民族差別を許さない闘いであり、安倍政権の再侵略を阻止する闘いでもある。

私たちは、原告たちと共に、必ず不二越と日本政府の謝罪と賠償を勝ち取る。そして、韓国・中国をはじめアジア、世界の人々の良識と連帯で、侵略戦争・植民地支配への道を二度と許さないことを誓う。

2014.3.25.

第二次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

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